



## 백범상 수상 소감



### <김찬하>

먼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처음 대회에 대해 듣고 많이 망설였습니다. 사실은, 한국어로 3 페이지 짜리 독서 감상문을 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빠, 엄마 그리고 친척들에게 편지를 쓴 적은 있지만, 감상문은 처음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도전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신청했습니다.

작년 12 월 마지막 날에 책을 받았습니다. 책이 두껍고 어려워서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한국어 읽는 속도가 느려서 빨리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가 한 번 소리 내어 읽어 주셨습니다. 단어나

개념을 이해시키면서 천천히 읽어 주셨지만, 그것도 답답했습니다. 사실 단어는 대부분 문맥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더 빨랐기 때문에 그냥 계속했습니다. 다시 책을 읽을 때는 혼자 힘으로 읽었습니다. 혼자 읽은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곧 제 힘으로 감상문을 쓰기 시작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저 스스로도 한국어로 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책을 읽고 감상문을 쓰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김구 선생님처럼 훌륭한 분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그전에도 한국사람이라는게 자랑스러웠지만, 이제는 더욱더 자랑스럽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면서 김구 선생님의 뜻을 마음 속 깊이 생각하며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 <김찬하 아빠 (김창민)>

찬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많은 것을 얻고 배웠다. 게다가 백범상이라니, 이건 덤 치고는 대박이다. 송구스럽다. 본국의 교육 혜택을 못 받은 교포 자녀에 대한 배려가 아니었을까? 감사할 따름이다.

소식을 들은 지인들이 '어디 한 번 읽어' 보잔다. 출품작 그대로 보내 드렸다. 되돌아온 말씀 중 일부:

"글의 구상, 전개, 결론이 기 막히네요. 소박하면서도 성실한 경험을 토대로 내면의 나름대로의 사상을 잘 표현했고, 어릴 적부터 자기의 방향을 이미 잡은 듯하니 부모로서 그 자긍심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감동! 감동! 이렇게 맑고 깨끗한 영혼, 확실한 주체를 가진 찬하가 정말 장합니다. 한국을 더 배우고 한국을 더 사랑하는 찬하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범선생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우리나라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안타까워 하시던 친정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컸지만, 정작 저는 별로 그 분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부끄럽네요. 정말 대견하군요."

"너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찬하의 글을 읽었는데 가슴이 뭉클해 지는 게 너무 잘 썼습니다."

"정말 잘 썼네요. 그간 경험한 하나하나의 인연과 일들이 좋은 생각으로 어울리니 이리 좋은 글이 나오네요. 누가 이런 글을 흉내 내고 싶어도 찬하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쓸 수가 없는 독특한 글이라 생각합니다."



와, 이쯤되면 찬하한테는 대박이지만 아빠한테는 대대박이다. (감사합니다. 꾸~벅.) 찬하야. 잘 자라서 네가 받은 만큼, 아니 그 보다 훨씬 더 많이, 세상에 베풀며 살거라.



#### <조덕현 지도교사>

지난 12 월 초. 나는 몬트레이한국학교 교장으로서 찬하와 우리 가족과 함께 낙스 주최 독도 논문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차 워싱턴 디씨에 다녀왔다. 찬하는 팀 리더로, 내 막내 딸은 팀 구성원으로 함께 했다. 나는 닷새 동안 함께 여행하면서 찬하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다. 내 딸보다 한 살 어렸지만 더 성숙해 보이는 그의 행동거지가 예사롭지 않았다. 돌아오자 백범일지 독후감 경진대회 소식이 온다. 솔직히 난 잠시 고민했다. 내심 딸 자식이 도전하기를 바라는 아빠의 마음과 이왕이면 기꺼이 하고자

하는 제자를 도와야 한다는 선생의 마음이 겹쳐졌다. 찬하와 찬하 아빠 생각이 났다. 우리학교 사물놀이패를 위해 태평소 한 번 배워보면 어떻겠냐고 진윤경 선생님을 소개해 주었을 때가 생각났다. 찬하와 찬하 아빠는 그 먼 길을 4 개월이나 오가지 않았는가!

찬하라면 우리 촌 동네 한국학교를 잘 대표할 수 있으리라. 난 찬하의 도전을 돕기로 했다. 역시 찬하는 학교의 기대, 가족의 기대,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도전과 기대에 부응했다. 찬하의 승전보 덕분에 이젠 우리 막내 딸도 내년에는 도전하려는 기색이다. 이제는 백범일지 독후감 대회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과 부모가 제법 많다. 그간 우리 촌 동네 수준으로는 아예 넘보지도 못할 일이라는 패배적 생각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의 변화가 내겐 보람이고 마음 뿌듯한 일이다. 백범 선생님 덕분에 우리 몬트레이한국학교는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그간 교사, 교장, 교육자 흉내만 냈는데 이제는 나도 더 성숙하고 진지해지리라. 그 게 저 세상 가서서도 이리 좋은 일을 하시는 백범 선생님을 기리고 그 분의 가르침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는 일이 아닐까 다짐한다.



## 최우수상 수상 소감



### <김한결 >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결입니다. 이렇게 큰 상을 받아서 나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김구 선생님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많이 이해가 안 가서 어려웠지만, 선생님과 이야기도 하고, 엄마, 아빠와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 시대를 사셨던 김구 선생님이 나는 너무 고맙습니다.

내 이름은 김한결, 자꾸 자꾸 불러봐도 김한결!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김구 선생님과 나는 같은 성씨를 가지었고, 나는 이제 9 살이고, 선생님 이름도 '구'여서 우리는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한글학교 가기 싫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더 열심히 다녀서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더 많이 알고 배워서 한국을 자랑하고 다니는 김한결 한국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년 4 월 25 일 김한결 드림

### <김한결 가족>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결이네 가족입니다. 처음에 감상문을 한결이가 썼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받았을 때 많이 망설였습니다. 사실 저희도, 김구 선생님 이름은 알고, 대충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알았지만, '정확하게 어떤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해 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같이 책이나 읽어보자'라는 마음에, '지금 아니면 한결이가 미국에서 살면서 언제 한 번 '김구'선생님에 대해 들어볼 수나 있을까?'라는 생각에 아이와 함께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책을 읽고 선생님들이 준비해주신 프리젠테이션을 보며, 때로는 그 시대에 분개하고, 그 분의 용감한 행동에 박수도 치며, 다양한 생각을 뽐어내는 한결이를 보며 '저 아이의 생각을 함께 나누어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한 어른으로서 '김구 선생님'에 대해 이제서야 더 자세히 알게 된 저희가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게 해 주신 한국 학교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누가 언제 물어봐도 '김구 선생님'에 대해 자신 있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김구 전도사!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 년 5 월 1 일 한결이네 가족 드림



#### <지도교사 오성연>

“오성원 선생님~! 한결이 최우수상이래요~!” 3 월 어느 저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결이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이 결코 놀랍지 않았습니다.

한결이와 함께 한글 공부를 한 지 벌써 삼 년입니다. 한결이는 평소 숙제를 열심히 해오고, 질문을 잘 하며, 친구 관계가 원만하며,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 학업 성취도가 탁월한 학생입니다.

한결이는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깊은 학생입니다. 자신의 입장보다 남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여 행동하는 지도자의 성품을 지녔습니다. 또한 이해력이 뛰어나며 조금이라도 이해되지 않을 시에는 속히 그리고 알 때까지 질문하는 끈기를 지녔습니다. 학업의 집중력과 열정이 뛰어나 종종 집에 가는 것을 잊고

진도를 나갈 수 있는지를 묻곤 합니다. 우리 반 아이들과 김구 선생님에 대해 책을 읽고 함께 생각을 나눌 때 진지하게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미국 땅의 우리 아이들이 한국의 역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어른들의 무관심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부모님들 혹은 선생님들이 조금만 열정을 가지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친다면 우리 아이들은 더 많이 이해하고, 한국을 사랑하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지 배우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백범 김구>독후감 쓰기를 통해 우리 아이들, 한결이는 리더십과 인내와 열정을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 그 분의 가르침을 따라 이 사회를 이끌어 나아갈 역동적인 리더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2014. 4.

오성원 드림



## 최우수상 수상 소감



### <옥주는>

제가 이렇게 큰 상을 받으니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것이 더욱 보람이 느껴집니다.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익히면서 정말 많은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한국학교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기회를 얻을수 있었기에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는것 같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이렇게 한국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며 한국인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자랄 수 있는것은 제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가끔은 힘들어 그냥 미국사람으로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적도 있었는데 끝까지 저를 도와주신 어머니와 한국학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흘러도 "머리가 되려 경쟁하지 말고 다리가 되고자 애쓰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백범 김구선생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서 마음 좋은 사람으로 자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김구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다'란 책을 통해 김구 선생님을 만난 건 제게 또 다른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어머니, 남금희 선생님, 김대영 교장 선생님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가르쳐주신 한국학교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옥주는 엄마 (백순혜)>

최우수상!

솔직히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학교 교장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의 축하 메시지를 받고도 실감이 나지 않아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한참 후 밀려오는 감동과 감사의 물결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란 딸에게 한국어 책을 읽고 한국어로 독후감을 쓸 수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것 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데 이렇게 큰 상까지 받게되니 정말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한 딸이기에 가끔은 갈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의미있는 상을 받고보니 힘들어도 포기하지않고 한국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코리언어메리칸으로 정체성을 잃지않고 자라도록 도와주며 지내온 시간들이 더 큰 보람과 감사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엄마의 마음과 생각을 잘 이해하며 순종해 준 딸도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어 공부를 꾸준히 해 준 이쁜 딸에게 고맙다는 말 전하고 그리고 매 주 토요일마다 한국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의 역사를 가르쳐주신 김대영 교장 선생님과 남금희 담임선생님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 <지도교사 남금희>

'제 4 회 백범일지 독서감상문쓰기 대회 입상을 축하합니다.' 와 함께 '**최우수상 열린문 한국학교 옥주은**' 을 확인한 순간 선생님은 가슴이 벅차고 너무 기쁜 나머지 표정 관리를 할 수 가 없었던다. 주은이를 아는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제일 먼저 교장선생님과 어머니께 이 기쁜 소식을 알렸지. 주은이는 학교 숙제와 시험, 또 특별활동으로 시간이 부족하여 포기하려고도 했었지만, 이 곳 버지니아에 기록적인 폭설로 인하여 '김구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다' 를 읽을 시간이 허락되었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겠다고 선생님과 약속해주었던 주은이가 참 고마웠고 귀한 시간을 허락한 폭설에게도 감사했단다. 주은이가 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선생님은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단다. 주은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영웅 백범 김구 선생님을 만난 것처럼 선생님도 지식의 보물창고인 책을 읽고 독후감 쓰는 것을 지도할 수 있는 똑똑한 학생 주은이를 만나서 행복했다. 김구 선생님께서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었던 것처럼, 주은이도 김구 선생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미래를 향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소중히 가꾸어 나가길 바란다. 축하한다. 옥주은!



## ◦ 심사 경과

전국 14 개 지역협의회 37 개 학교에서 238 명의 학생들이 신청하고, 118 명이 응모했으며, 12 명의 수상자를 냈다. 방민호(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동식(인하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표정훈(한양대 특임교수, 출판평론가)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응모작 총 118 편에 대하여 내용 이해도 및 의미 발견, 문장 구사 능력, 글의 구성과 논리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책에 나타난 백범 김구 선생의 뜻과 실천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이나 오늘날의 현실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탐색, 발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책 내용의 단순한 정리에서 나아가 자신이 느끼고 생각한 점을 솔직하게 서술하는 진정성을 눈여겨 심사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총 12 편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 ◦ 심사 총평

학년에 따라 문장 수준이나 내용 이해도에 다소 차이가 났지만, 글 구성의 참신함이나 서술의 진정성은 학년 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저학년 학생이 쓴 응모작들 가운데 뛰어난 것들도 많았다. 백범 선생에 관한 '지식' 나열에 치중하지 않고 '지식을 바탕으로 한 느낌과 삶의 태도 변화'를 이야기한 응모작들이 많았다는 점, 자신의 미국 생활 경험과 접목시켜 텍스트를 이해하는 응모작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 등은 고무적이다. 백범상부터 장려상까지 시상 순위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수상작들이 제 나름의 특징과 장점을 지닌 글이라는 점에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다. 수상하지 못한 응모작들 중에도 수상작 못지않은 글들이 많았지만 작은 차이로 매우 아쉽게 제외되었다.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이른 나이에 이주하여 자란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하여 백범 선생과 우리 근현대사에 관해 사실상 처음으로 깊이 알게 되었다는 학생들이 많았다. 이 점은 본 대회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 수상작 심사평

백범상 수상작 김찬하(9 학년, 몬트레이-북가주) 학생의 글은 자신의 구체적인 미국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백범의 삶과 생각을 이해했다는 점이 돋보였다. 익숙하지 않은 텍스트를 접할 때 자칫 관념적, 추상적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김찬하 학생의 글은 실감과 구체성을 지니고 있다.

최우수상 수상작 김한결(4 학년, 뉴호프-동중부) 학생의 글은 백범 선생에게 쓰는 편지 형식을 통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솔직하게, 인상적으로 잘 표현하였다. 옥주은(7 학년, 열린문-위싱턴) 학생의 글은 텍스트를 충실하게 이해한 바탕 위에서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감성적으로 표현한 점이 돋보였다.

우수상 수상작 김채원(6 학년, 아틀란타연합장로-동남부) 학생의 글은 백범 선생의 삶과 생각에서 자기 삶의 교훈을 잘 이끌어내었다. 박성찬(8 학년, 시애틀통합) 학생의 글은 백범 선생의 교육 및 문화사상과 실천에 대한 이해도가 깊었다. 윤도웅(5 학년, 남부뉴저지통합) 학생의 글은 백범 선생과 대화를 나누는 참신한 구성으로 학생 자신의 삶의 태도 변화를 진정성 있게 표현한 점이 돋보였다.